보도자료

사업담당 : DMZ관광팀 박재영 팀장(031-956-8303) 배포담당 : 홍보마케팅팀 김영식 팀장(031-259-4733)
박상인 대리(031-956-8313) 박재성 주임(031-259-4718)

배포일시 : 2026. 10. 20.(화)

경기도-경기관광공사, '수제 호패·족자 증서' 등 평화누리길 완주 기념품 추가 개편

- 19일 접수부터 '첫 완주' 및 '최근 재완주자' 대상 제공...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차원 -

- 연천 거점센터 '어울림센터'에서 현장 인증 및 호패 맞춤형 각인 서비스 지원 -

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가을 걷기 여행철을 맞아 평화누리길 전 코스 완주 기념품을 전면 개편해 지난 19일부터 새롭게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.

평화누리길은 김포, 고양, 파주, 연천 등 접경지역 4개 시·군을 잇는 총 12개 코스(약 189km)의 대표 도보여행길이다. 이번 추가 개편을 통해 신규 여행객의 첫 종주 도전을 이끌고 기존 완주자의 재종주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.

새롭게 도입된 완주 기념품은 전통 방식의 공예품으로 소장 가치를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. 기존 제공되던 마스터 배지 및 코스별 핀배지와 함께 ▲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목공방과 협업해 제작한 전통 목공예품 '수제 완주호패(가방걸이)'와 ▲완주의 명예와 품격을 높여줄 전통 형식의 '족자형 완주증서'를 추가로 구성했다.

지급 대상은 전 코스를 처음 완주한 '첫 완주자'와 과거 완주 이후 최근 전 코스를 다시 걷고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는 '재완주자'다. 단순한 과거 이력만으로는 소급 지급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재완주를 달성해야만 추가된 기념품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
현장 방문자를 위한 '맞춤형 각인 서비스'도 마련됐다. 연천에 위치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인 '어울림센터'에서 수제 호패에 완주자 성함, 완주번호, 완주일자를 새겨준다. 현장에서 오프라인 인증을 하면 즉시 각인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, 온라인 신청 후 택배로 수령한 경우에도 추후 호패를 지참해 센터를 방문하면 상시 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화누리길 공식 카페(cafe.daum.net/ggtrail)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(☎031-834-9662, 09:00~18:00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"도보여행객들이 땀 흘려 새긴 수많은 발자국과 특별한 추억을 보다 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성 어린 선물로 완주 기념품을 제작했다"며, "평화누리길 완주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연천 어울림센터에 방문하셔서 나만의 각인 호패와 품격 있는 족자 완주증서를 만나보시길 바란다"라고 말했다.